

양양소식



2022. 11

Vol. 330

CONTENTS

04 기획특집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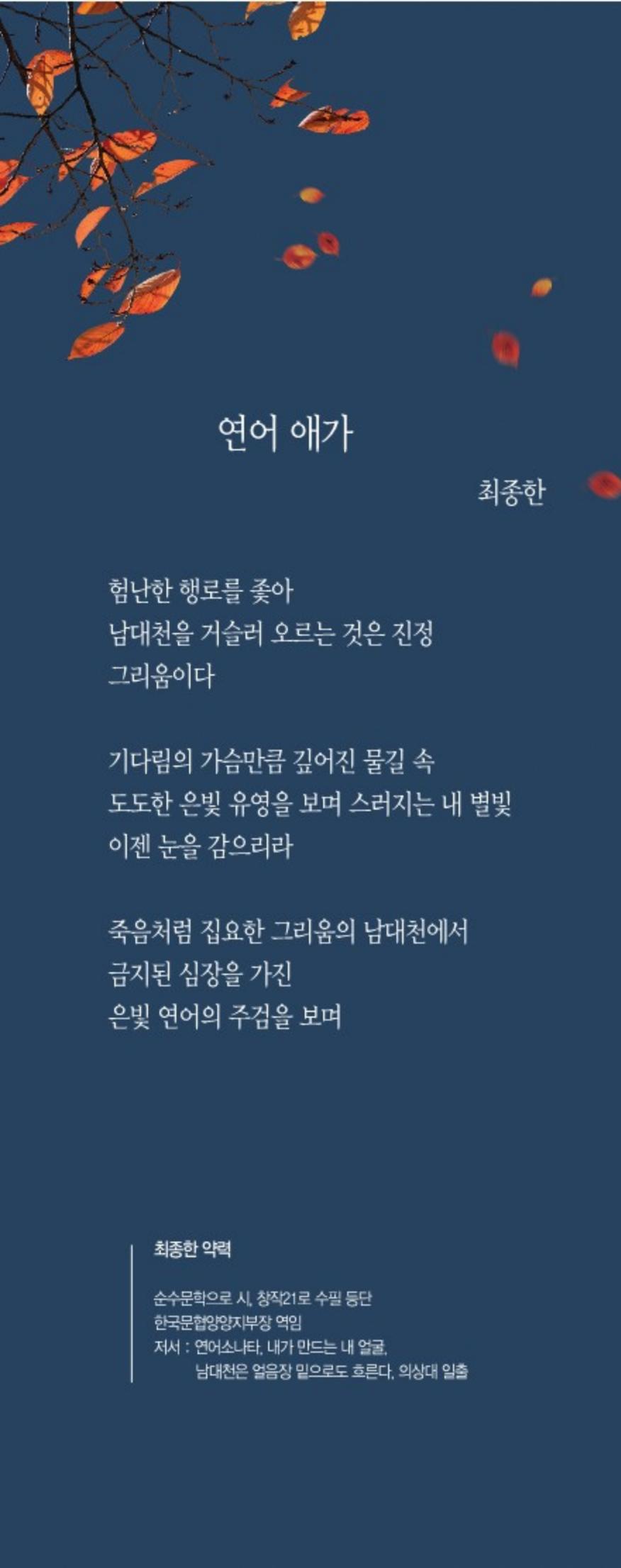
08 마을가는 길

강현면 용호리

12 양양군청 IN & 人

도시계획과





연어 애가

최종한

힘난한 행로를 좇아
남대천을 거슬러 오르는 것은 진정
그리움이다

기다림의 가슴만큼 깊어진 물길 속
도도한 은빛 유영을 보며 스러지는 내 별빛
이젠 눈을 감으리라

죽음처럼 집요한 그리움의 남대천에서
금지된 심장을 가진
은빛 연어의 주검을 보며

최종한 약력

순수문학으로 시, 창작21로 수필 등단

한국문협중앙회 부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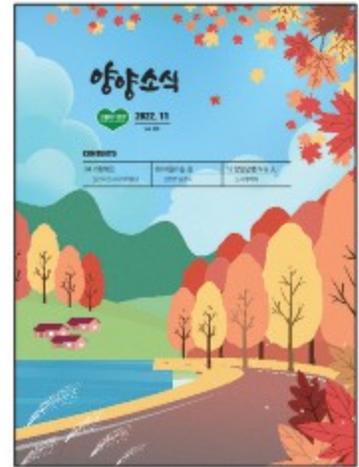
저서 : 연어소나타, 내가 만드는 내 얼굴,

남대천은 얼음장 밑으로도 흐른다. 의상대 일출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8 마을가는 길_ 강현면 용호리
- 12 양양군청 IN & 人_ 도시계획과
-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양양연어축제



의기양양

- 16 의정소식_ 양양군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
- 18 향토사 이야기_ 신라의 동해안 북진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 양양
-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건강 알리미_ 모야모야병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_ 2022 양양 강변 전국마라톤 대회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30호

|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옛날 옛날에 오산리에

사람이 살았다는데 ...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으로

떠나는 과거 여행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 양양군 오산리에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믿기지 않지만, 바다와 숲과 너른 평지가 있는 오산리에서 신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터와 돌칼, 돌창, 돌도끼 같은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모두 4천여 점의 신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어 지금은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서 유적과 유물을 보존·전시하고 있는데요, 옛날 먼 옛날에 신석기 시대의 생활을 생생히 볼 수 있는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으로 과거 여행을 떠나보시겠어요?



1981년 양양 오산리 유물 발견돼

1981년 오산리 주변의 호수를 농지로 개발하던 중에 발견된 유적지에는 10여 기의 움집터와 불 피웠던 자리, 토기, 낚시 도구 등이 발견되었는데, 추정 결과 신석기시대의 유물로 밝혀졌다.

양양은 넓은 하천과 바다, 호수 등이 펼쳐져 오래전부터 인

류가 정착하기 좋은 자연환경으로 도화리에서는 70만 년 전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고, 오산리를 비롯해 지경리, 가평리에서는 신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

2007년에 개관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들을 전시해 당시의 생활상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날 수 있다. 박물관은 넓은 쌍호(雙湖)가 펼쳐진 곳에 자리했는데, 박물관 앞 야외 전시장에는 신석기시대의 움집을 체험할 수 있게 재현했고, 전시실에는 오산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제1전시실에는 신석기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당시에 토기를 제작했고, 고기잡이를 하며,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던 유물들이 전시



또한 쌍호 주변에서 발견된 집터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고기잡이 도구가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신석기시대에는 어로가 생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석기와 화살촉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겨울을 날 식량과 모피류를 얻기 위해 석기로 만든 활과 창을 사용하여 사슴, 노루, 멧돼지 등의 동물을 사냥하고, 나무나 식물의 뿌리와 과일, 열매 채집했을 것이다. 또한 원시 농경의 형태로 조기장 등의 곡물도 수확했던 것으로 보인다.

돼 있다.

신석기시대의 토기 모양은 밑이 납작한 '납작 밑 토기'와 포탄 모양의 '뽕족 밑 토기'로 구분되는데, 토기의 겉면에 무늬를 덧붙인 '덧무늬토기', 조개나 동물의 뼈 등으로 누른 '누른 무늬 토기', 무늬를 새겨 넣은 '빗살무늬토기', 무늬 없이 갈아서 만든 '민무늬토기' 등 다양한 토기가 출토되었다.



덧무늬토기

이러한 주거생활 모습을 실물 크기의 디오라마 모형으로 재현해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상인 '토제인면상'(土製人面像)이 발견되었는데, 둥근 점토판을 손가락으로 눌러, 사람 얼굴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와 세로의 폭이 각각 4.3cm와 5cm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상(神像)의 하나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제2전시실은 강원 영동지역의 선사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양양을 비롯하여 강릉, 고성지역의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의 토기, 석기, 그물추(어망추) 등 기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오산리 유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유물로는 돌톱이 있는데, 길이 18cm 크기에 23개 톱니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형 돌톱이 출토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경우다.

또한 낚시도구 중 이음낚시는 제작 기법과 형태가 특이해 학계에서는 '오산리형 이음낚시'라고 부르는데, 낚시바늘의 허리 부분은 돌을 갈아 만들고 미늘부분은 동물의 뼈를 섬세하게 갈아 끈으로 묶어 낚시바늘을 완성한 것도 전시 중이다.

기획전시실에는 '덧무늬토기'(隆起文土器)를 볼 수 있다. 그릇의 표면에 점토 띠를 덧붙여 여러 가지 문양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넓은 발형(鉢形)이며 바닥은 편평하며 밑에서부터 완만하게 벌어져 올라가다 위로 갈수록 직립에 가깝게 줄

어드는 형태의 토기이다. 또, 곰 모양의 토우는 크기는 길이 5.5cm, 너비 2.3cm, 높이 2.2cm로 곰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신앙과 연결되는 신석기시대 동물 의례와 관련된 유물로 생각된다.

이처럼 신석기시대의 생활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물 가운데서도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대형 돌톱이나 오산리형 이음낚시 등을 보는 재미도 특별하다.



체험으로 이해하는 신석기 시대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밌는 박물관으로 인기가 높는데, 상시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고고학적 복원 방법을 체험하는 '나는야 고고학자'-유물 발굴 및 복원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유물 퍼즐 맞추기나 유물 스크래치 체험 등은 유물을 더욱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유물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이나 선사시대 목걸이 만들기 등은 아기자기한 재미로 인기가 높는데 유료 체험으로 진행 중이다.

오산리유적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하고 싶다면 박물관 해설을 추천한다. 해설은 하루에 세 번, 11시, 14시, 16시에 운영한다.

현재 전시 중인 유물과 체험 등을 통해 8000년 전의 생활상을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더욱 다양한 시각 자료들을 통해 신석기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와 게임 콘텐츠를 결합한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물관 체험 공간 내 고해상도 영상,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실

감 콘텐츠와 게임 콘텐츠를 결합한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 AR/VR로 즐기는 신석기시대 문화상을 재밌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0월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을 찾았을 때, 체험 학습을 나온 중학생들과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재밌는 전시 공간을 돌아보고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 즐겁다고들 했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은 오산리 신석기 사람들의 생활 터전 이었던 움집체험을 하며 둘러앉아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조각난 토기를 복원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누구나 즐겼는데, 여행길에 들렀다는 노부부도 빗살무늬토기 복원체험을 하며 재밌어했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은 뒤로는 설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앞으로는 쌍호 습지가 펼쳐져 있는데 잘 조성된 산책로가 있어 산책하기 좋다. 습지를 걸으며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생활 터전에서 옛날 옛적의 그 시대를 그려봐도 재밌는



상상이 된다. 이번 가을에는 가볍고 즐겁게 오산리선사유적 박물관으로 과거 여행을 떠나도 좋겠다.

〈글·사진 :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강현면 용호리

젯빛 절망을 딛고 일어난 쪽빛마을
큰 위기를 겪으며 더 돈독해진 주민들
마을과 사찰의 아름다운 연결고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뉴스를 듣고 마스크 없이 바깥 공기를 실컷 마셔본다. 가을바람이 참 달다.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당연히 누리던 것들을 한 번 잃고 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2005년 마을을 덮친 화마(火魔)로 비탄에 젖었던 용호리 사람들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갖게 되었다. 상생의 가치를 깊이 깨우친 용호리 사람들은 여전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절망을 딛고 찾은 상생의 가치

낙산사에서 북서쪽에 자리한 용호리는 수산항에서 시작한 해파랑길 44코스와 맞닿은 마을 중 하나로, 85가구 150명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으며, 후진항과 설악해변 등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품고 있다.

「용호리 앞에 용개가 있었으므로 용호리라고 칭한다. 본래 양양군 사현면의 지역으로서 용못 뒤쪽에 있으므로 뒷골, 또는 용못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호리로 고쳐져 강현면에 편입되었다.

- 출처 : 양양문화원 홈페이지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된 호수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라져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라진 건 호수만이 아니었다. 2005년 갑작스럽게 닥친 화매(火魔)는 인근 낙산사는 물론 주민들이 평생을 일궈 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집어삼켰다. 잿더미가 된 집터를 바라보아야 했던 주민들의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있을까?

「불이 나고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싹 타버리고 몸만 겨우 빠

져나왔으니까. (유일하게 불길기 번지지 않은) 마을회관 1층에서 여자들이, 2층에서 남자들이 임시로 머물렀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보듬어주면서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몰라요.

- 주민 박진호 님

1년에 걸친 복구 작업으로 현대식 주택들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마을 경관도 눈에 띄게 달라졌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한다. 그만큼 2005년 그날의 일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재해도 남 일 같지 않다. 용호리 주민들은 인제 의수해 현장과 전라도 지역의 폭설 피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쌀을 전달하는 등 화재 당시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다른 지역 구호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건네는 온정의 손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희망의 불씨가 된다. 용호리 주민들은 그렇게 이웃과 함께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그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



화재 10년 후 쪽빛마을로 거듭나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큰일을 겪으면서 주민 간의 연대 의식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것은 용호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장원규 강현면 노인회장은 '우리 마을은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주민들이 다툼 없이 화합이 잘 되는 것 같다.'라며 주민들의 남다른 결집력을 높이 샀다.

용호리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건강장수 마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으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매진했고,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체험 상품 개발을 통해 마을 공동 발전과 소득 증대를 모색했다. 푸른 바다처럼 창창한 미래를 꿈꾸며 '양양쪽빛마을'이라는 새 타이틀도 달았다.

특히,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해 심은 해바라기는 한동안 마을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해바라기를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하고, 마을로 이어지는 길목에 커다란 해바라기 벽화까지 그려 넣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새로운 경관 창출을 통해 마을의 홍보대사로 그 역할을 톡톡

히 했던 해바라기밭은 아쉽게도 들깨밭으로 바뀌었다. 마을 주민의 고령화에 따라 해바라기 군락 관리가 어려워지자, 2019년부터 해바라기 대신 들깨를 공동 경작하기로 한 것이다. 주민들은 함께 들깨를 심고 추수하는 과정을 통해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가을에 수확한 들깨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을 잔치를 열어 친목을 다지면서 끈끈한 이웃의 정을 이어오고 있다.

수심이 낮고 접근성이 편리해 매년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는 설악해수욕장은 용호리의 또 다른 소득원으로, 해변정화와 파라솔 대여 등 주민들이 직접 해수욕장을 관리하면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돈래 이장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들의 연결선 상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다.

「현재 마을 소득사업으로 해수욕장 운영과 들깨 농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그와 연관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펜션이 완공되어서 그에 대한 활성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김돈래 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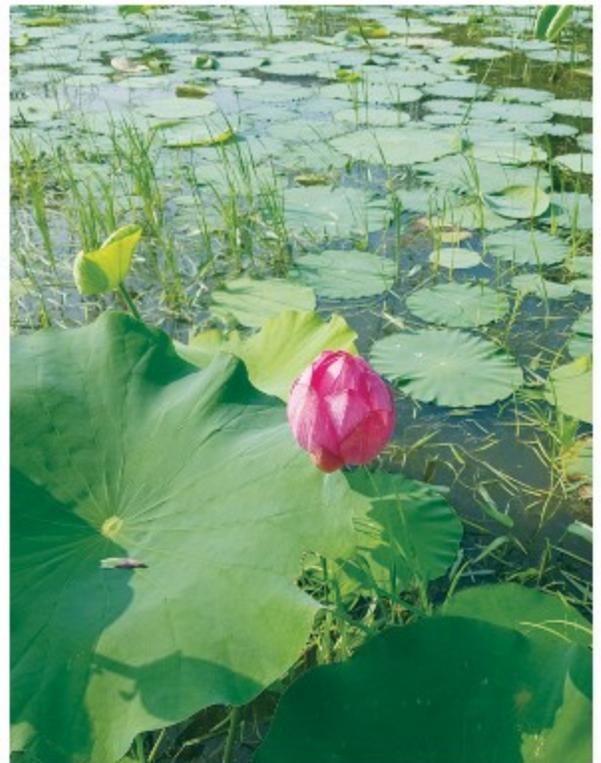
전국 최초 불자마을이 되기까지

용호리는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가진 마을이다. 오래전부터 인근에 자리한 낙산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긴밀한 관계를 쌓아 온 주민들은 사찰과 마을이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7년 전국 최초로 불자마을을 창립했다.

용호리 주민들은 마을 입구 표지석 위에 '낙산사 불교인의 마을'이라는 간판을 달고, 마을 안에 수미탑을 쌓았으며, 부처님의 꽃으로 알려진 연꽃도 심었다. 또한, 석가탄신일 봉축행사부터 매월 진행되는 정기법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불자마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다.

용호리의 이 같은 행보는 다른 마을에도 영향을 주어 강현면 전진1·2리, 주청리, 사천리, 손양면이 잇따라 불자마을로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찰과 마을의 상호 교류는 큰 시너지가 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이루어 내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낙산사 정기법회가 재개되면서 오랜만에 주민들도 법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동안 마음에만 품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회를 통해 되새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으리라.



올여름에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너른 연밭에는 연꽃이 무성하게 피어, 마을을 오가는 이들에게 향기로운 풍경을 선사했다고 한다. 그것은 용호리가 부처의 가르침으로 대가 없이 베푸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눔의 미덕이 연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

〈글·사진 : 편집부〉

도시계획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있는 정비를 책임집니다

부서 : 도시계획과
규모 : 4팀 18명
업무팀 : 지역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경관디자인

길고 어두웠던 코로나19를 지나는 가운데에도 양양군의 변화가 눈부시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최근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서 대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낙산 도립공원 해제로 인근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도시의 변화 또한 예상된다.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정비를 추진하는 곳, 양양군 도시계획과를 소개한다.



양양군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도시는 시대에 따라 발전해 나가며 지속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시계획과는 기존에 '경제도시과'에 포함돼 있다가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부서로 독립해 개설되었다.

양양군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비롯하여 주택단지, 산업

단지, 관광단지 등 신시가지 개발, 도시의 미관 향상 및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경관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과의 업무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업무 분담에 따라 18명이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일하고 있다.

최근 양양군 발전의 여러 호재를 맞아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공간 구조 개편을 고려한 도시 설계와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일하는 중이다.



낙산지구 개발계획 수요에 따른 경관변화 예상도

관광 · 휴양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

최근 도시계획과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2035년 양양군기 본계획에 대한 강원도의 승인을 마쳤다. 양양군 현황과 전망, 발전방향을 포함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 도시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양양군은 2018년 기점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며 지역 발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광 · 휴양의 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했다.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는 일

이 주요 업무이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쇠퇴한 곳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일 역시 도시계획과의 업무로 지역 내 산재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전략을 추진한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남문리와 서문리 사업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돼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양 완료된 중광정지구와 정암지구 전원마을을 유지관리하고, 월리 대지조성사업 또한 거의 분양이 완료돼 도시민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다. 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시설을 개설하고 유지보수 하는 일 또한 도시계획과 담당이다.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양우내안에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시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계획도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양양군 곳곳의 도로 확포장공사와 개설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도로변의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공공조형물 심의,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철거,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 경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도시재생 친환경마켓

도시가치를 높이는 도시계획, 군민 만족 최우선

도시계획과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양양군 각 부서의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 주차장, 터미널, 운동장 등 공적 시설계획을 결정하고 유지·관리하는 일을 한다.

현재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에서 7번국도 간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완벽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계획을 통해 도로를 개설하고 확충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드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함이 뒤따르는 중요한 사업이라도 공적 시설계획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공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제약하면서 영향을 받는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데 따라 일부 토지를 반드시 편입해야 하지만, 보상기준의 차이에 입장이 달라 갈등이 발생할 때가 많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고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과는 우리 군민들을 만족시키는 일이 최우선이며 가장 가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것이 근본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양양연어축제



1996년 <제1회 연어축제>



2019년



양양군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10월 5일 간담회를 열고, 자치행정과로부터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학술연구 지원 등을 위하여 2023년에는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 1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장학금 수혜자가 관내 고등학생 재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 출신으로 타지역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학생 선발 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주문했다.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10월 11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획감사실로부터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따라, 강원연

구원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양양군 맞춤형 역점시책 발굴과 정책 자문을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노후시설 환경개선

10월 17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산림복지과로부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예산 9,000만원을 들여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노후시설들을 교체·정비하고, 숙박 난방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숙박이용객의 만족도를 높

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들은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이 편안한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주민과 관광객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양양군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길 주문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 성립전 사용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과,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 성립 전 사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으로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시행비를 지급하고, 입

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들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은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방역 체제가 많이 완화된 상황이지만 주민 감염예방과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라의 동해안 북진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 양양 (후포매리산성과 고분군의 고찰)

1. 서언

최근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은 육해공에 걸쳐 종합 운송 수단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해안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양양의 변화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1500여 년 전의 양양은 어떠하였을까. 양양은 수백 년 동안 고구려의 땅이었지만 5세기 후반~6세기경 신라 정부는 양양을 동해안 북진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아 고구려에 대항, 교통로와 보급로 확보, 지방통제,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어 등의 기능을 담당할 전진기지로 구축하여 신라 팽창의 거점으로 삼고자 했다. 이는 후포매리 산성과 그 주변에 분포되어있는 고분군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2. 후포매리산성

후포매리산성은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와 건불리의 경계 일대에 위치한다. 이 산성은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된 성으로 그 위치 상 고도가 높고 험한 산봉우리 정상에 만들어졌으며 북쪽의 산봉우리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낮아지는 긴 타원형이다. 산성은 잘 남아있으며 성벽의 둘레가 약 450m 정도이다. 산성에서는 인구 앞바다, 후포매리의 포매호와 주문진까지 조망된다. 성벽의 축조 방법은 2~3단의 석축으로 낮게 기단을 만든 후 그 위에 토축(土築)을 하는 기단석축형(基壇石築型) 토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성(土城)으로 판단한다.

산성 내에서는 경주계 토기들이 다량 보인다는 점에서 경주 세력의 강한 영향력과 신라 중앙세력의 다양한 지방 지배의 통제 방식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이 신라 북쪽의 동해안 변경에 위치한 까닭에 고구려 및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산성은 다소 평지와 먼 거리이면서 높은 고도에 축조되었고 이후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관련하여 군사적 거점이나 동산현(洞山縣)의 치소(治所) 또는 배후성(背後城)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진흥왕이 함경도로 진출할 때 양양이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신라의 전성시기를 구축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후포매리 신라산성

3. 후포매리 고분군

후포매리산성 주변으로 후포매리고분군 I·II가 분포한다. 후포매리고분군 I 이 후포매리산성의 남쪽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반면, 후포매리고분군 II는 산성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2017년 지역주민 제보로 후포매리 산85번지 일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후포매리고분군 I 내의 고분 1기를 학술발굴조사 하였다.

이 고분은 영동지역 최북단의 옛 신라 앞트기 식돌방무덤(橫口式石室墓)으로 확인되었다. 앞트기식돌방무덤이란 묘실(墓室)의 한쪽 벽을 뜯고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추가 매장을 의도한 무덤 형태로 6세기부터 조성되었다. 또한 고분에서는 신라 6세기대로 추정되는 토기와 마구류(馬具類), 철도자(손칼) 등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후포매리에서 발견된 앞트기식 돌방 무덤

양양 후포매리고분의 발견은 그간 옛 신라 고분이 여럿 발견된 강릉 일대보다 더 북쪽까지 신라가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이며 앞서 1990년대에 고구려 고분으로 발견된 양양 포월리 고분군과는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실을 통해 당시 양양이 양국 국경선 다름에서 요충지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고분 석실 덮개석

4. 양양의 고분군들의 상관관계

양양지역 남쪽에 위치한 원포리고분군은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조영된 신라의 고분군으로 5세기 중엽에는 원포리 일대까지 신라 영역권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양양지역 북쪽에 위치한 포월리 고분군은 고구려 계통의 관고리가 보이는 등 무덤의 구조와 매장 방식 그리고 출토유물을 통해 고구려 고분군으로 확인된다. 서로 다른 성격을 띠는 두 고분군의 중간 지대가 5세기 중엽까지의 신라 - 고구려의 경계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세기 후엽에 들어서면서 신라는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 경계를 확장하고 소백산맥 이북에서 전투를 벌이고 새로이 축성(築城)하거나 개축(改築)하는 등 점차 북진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5세기 후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신라는 소백산맥을 넘어 남한강 상류 역까지 많은 산성과 고분군을 조영한다. 강원지역 역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산성과 고분군이 여럿 확인된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동해안의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 신라의 북방진출을 크게 뒷받침하는 역사적 자료가 바로 양양의 후포매리산성과 후포매리고분군이다.

5. 역사적 의의

후포매리 산성은 강원도 동해안에서 최초로 발견된 그리고 최북단에 위치한 신라성이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의 고고학적 조사는 신라 고분 자료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후포매리산성은 후포매리고분군과 함께 후포매리산성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고대 교통로, 고구려·신라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던 5~6세기 강원 영동지방의 역사적 변동상황, 신라 고분 문화의 지방 확산 향상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양양에 담겨있는 지리적 역사적 가치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2022 양양 강변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르네상스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한 남대천과 동해 바다를 돌아 달리는 '2022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가 11월 13일, 양양 남대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참가자 모집은 지난 9월 30일부터 대회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총 2,70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게 된다.

이번 대회는 양양군과 대한육상연맹, G1방송이 주최하고 강원도 육상연맹과 G1방송의 주관으로, 남대천과 낙산 해변 · 동호해변을 두루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2 전국중고교 마라톤대회가 함께 열리며, 동호인 가족 및 동반자를 위한 이벤트 행사인 남대천길 걷기도 운영한다.

양양군민 내년도 현안사업 우선투자대상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꼽아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에서 양양군민들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현안사업 우선 투자대상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 현안사업 우선 투자대상 사업으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25.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관동대 양양캠퍼스 활용방안 마련(22.6%)에 대한 부분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삭도 설치사업비 확보와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이 요구되고, 양양캠퍼스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양양군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 제47회 강원축산경진대회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양양군은 강원도와 농협강원지역본부가 주관하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협조로 추진한 2022년 제47회 강원축산경진대회 종합평가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양군 수상자는 총 5개 농가로 대회에 참가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한우고급육 부문에서는 이달형 농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박정봉 농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하성적부문에서는 류재문 농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한우암소경진대회 암송아지부문에서는 김주현 농가가 장려상, 미경산우부문에서는 이강호 농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가축 9,700두 일제 백신 접종...구제역 방역 총력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11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군은 구제역에 대한 면역력 획득으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소, 염소, 사슴 등 9,700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대상 우제류는 소 8,000두, 염소 1,600두, 사슴 100두이며, 이번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접종은 기존처럼 예방백신을 지원하여 공수익을 동원해 접종한다. 염소와 사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백신을 지원하여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양양군청 사이클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개 메달 획득



양양군청 사이클팀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자전거경기에 출전해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양양군청 사이클팀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양양 사이클경기장과 양양 일원 도로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하여 금 2개(단체스프린트, 독주), 은 1개(스프린트), 동 1개(경륜)를 획득했다.

특히 국가대표 소속인 최우림 선수가 독주경기와 단체스프린트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강원도선수단 선전에 크게 기여했다.

마을단위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양양군 15개 마을에 대한 마을단위 통합방송시스템을 11월 말까지 보수 및 구축에 나선다. 이는 마을에 원격 무선 방송시스템을 설치해 산불,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정보의 원활한 방송을 통해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마을단위 통합방송시스템은 각종 재해 재난과 관련,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량의 증가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마을 이장들이 출장 중이거나 부재중일 때도 전국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마을에 방송이 가능해 업무 부담이 크게 줄고, 위험상황 발생 시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책 속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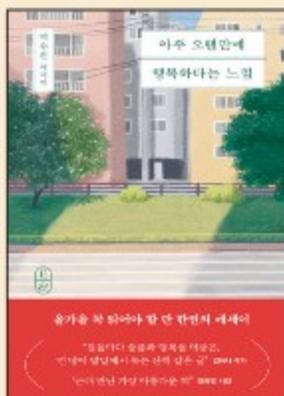
11월 책이야기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 백수린 지음

| 창비

| 2022. 10월



2022년 봄부터 4개월간 창비 온라인 플랫폼 '스위치'에서 일부를 연재할 당시 매달 1천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이 글은 백수린 작가가 몇년 전 자리 잡은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를 배경으로 한 애뜻하고도 눈부신 기록이다. 아파트를 벗어나 난생 처음 살게 된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과 그곳에서 떠나보낸 반려견과 사랑하는 사람들, 이별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슬픔과 인생에 대한 통찰, 여성작가로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 담았다.

백수린 작가의 사려 깊은 성찰과 아름다운 문장이 돋보이는 이번 에세이는 각 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서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보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그 인생의 찬란한 비밀을 엿볼 수 있다.

책 속 한 구절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행복이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행복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밤 찾아오는 도둑눈처럼 아름답게 반짝였다 사라지는 찰나적인 감각이란 걸 아는 나이가 되어 있었으니까. 스무살이었던 나의 빈곤한 상상 속 마흔과는 다르지만 나의 40대가 즐겁고 신나는 모험으로 가득하리란 걸 나는 예감할 수 있었다. 어린 날들에 소망했듯 나 자신을 날마다 사랑하고 있진 않지만, 나쁘지만은 않다. 앞으로 살아가며 채울 새하얀 페이지들에는 내 바깥의 더 많은 존재들에 대한 사랑을 적어나갈 테다.

이 별에서의 이별

| 양수진 지음

| 싱긋

| 2022. 10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새기기만 한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 생각한다. 밤이 깊을수록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반짝이듯, 죽음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 있을 때에 삶 또한 영롱히 드러난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살아지다 사라져간다는 것에 대하여.

영원한 이별 뒤에 오는 인연 이야기. 생명이 있는 것은 죽는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여긴 채 죽음에 관해 생각하기를 꺼린다. 상실과 부재를 부정하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기인한 현상이겠지만, 오히려 삶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죽음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 책은 8년차 장례지도사가 임종과 사별의 현장에서 눈물과 후회, 사랑을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를 묶은 것이다. 저자는 "이 별에서 머물다가 다른 별의 빛이 된 사람들과 남겨진 이 별에서 그리움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곁에서 보살피는 일이 배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만남이었다"고 말한다. 영원한 이별 뒤에 찾아오는 인연에 대한 기록이자, 평온한 죽음과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성찰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걸리버 리턴즈



블랙팬서 외칸다 포에버



데시벨



올빼미



보디가드(재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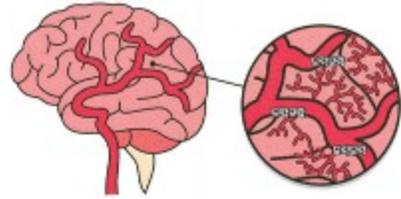


본즈 앤 올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033-673-7050
<https://yangyang.scinema.org>

혈관이 연기처럼 모락모락 모야모야병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 및 주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주변에 아지랑이처럼 수많은 가늘고 악한 이상 혈관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입니다.

미세혈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모야모야(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일본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모야모야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모야모야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전성 요인, 감염이나 혈관염과 같은 염증 반응 혹은 자가 면역 이상 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모야모야병 유병률은 연간 3.16명(10만명 기준),
발병률은 연간 0.35~0.5명(10만명 기준)**



**5~15세, 30~49세에
높은 발병률**



**한국과 일본에서
서양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발병률 (*특히 여성)**

모야모야병 증상은 무엇인가요?

주요 증상



한쪽 팔다리
아니면
감각이 이상하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일어서거나
굽으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주위가
방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



의식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한다



감지기 눈에
안보이거나
물로 보인다



감지기 벅락치듯
심한 두통이 온다

뇌혈관 영상에서 주요 뇌혈관이 좁아져 있으면서 모야모야 혈관이 보이는 경우, 모야모야 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뇌 검사 진행
뇌 MRI
뇌혈관 MR (MRA)
뇌혈관 조영술 (TFCA)
뇌혈류 검사 뇌관류 CT / 뇌관류 MRI, 핵의학검사 SPECT

**희귀질환 정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검색하세요!**

출처 : 질병관리청

정보꾸러미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한국검인정교과서	2명	바리스타	교대근무	월203만원이상
	1명	사무보조원	09:00~18:00 (주5일)	월203만원이상
인행재가 노인복지센터	2명	방문요양보호사	시간협의 (주6일)	시급11,800원
대하측량설계공사	1명	토목측량기술사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이상
더조은요양원	1명	요양보호사	교대근무 (주5일)	월220만원
매홍말연에프	5명	식품생산직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주식회사 남애기전	1명	경리사무원	08:30~18:00 (주5일)	월220만원
가족노인 주간보호센터 ㈜이림인테크 (양양 솔비치)	1명	사회복지사	09:00~18:00 (격주5일)	월191만원이상
㈜스피어테크	2명	생산관리원	09:00~18:00 (주5일)	임금협의
	1명	화장품연구원	09:00~18:00 (주5일)	연2,800만원이상
㈜골든에스앤씨	5명	사우나라카관리원	교대근무	월250만원이상
	3명	조리사	교대근무	월250만원이상
	5명	객실청소원	08:30~17:30 (주5일)	월229만원
	3명	프론트사무원	교대근무	월235만원
㈜소노인테레셔널 양양지점	5명	출세킹원	08:30~17:30 (주5일)	연2,298만원이상
	3명	조리원	08:30~17:30 (주5일)	연2,298만원이상
	2명	시설팀 유지보수원	교대근무	연2,298만원이상

2022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12월)

월별	기간	접수기간	수강내용
12월	11. 28. ~ 12. 22. 주간(화,목) 야간(월,수,목)	11. 21. ~ 11. 25.	(주간) 멀티미디어 임문번우비메이커 & 파워디렉트, 스마트폰 활용(동영상 관련 앱 활용) (야간) ITQ한글 및 ITQ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교육장소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제1교실)

교육인원 각반2명(선착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유동적 대응

교육시간 (주간반) 10:00~12:00(화, 목) / (야간반) 18:30~20:30(월, 수, 목)

신청방법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033-670-2116)

*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육이 부득이하게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꾸러미

행정·공공기관의 시설·물품을 국민과 함께 쓰는 「공유누리」 서비스

즐거로운 여가생활, 공유누리와 함께해요



공유누리
www.eshare.go.kr

주차장 · 회의실 · 체육시설 · 캠핑장 · 생활공구 등을
「공유누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本格 시행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



신고사항일 2022년 8월 18일(목)
신고의무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농지대장 변경신청 내용

신고대상	신청유형	시행일	당사자	비고
① 농지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2.8.18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자	사전 신청 시 1개월 이내 농지소유자 휴대전화번호 신고
② 농지소유권변경 * 농지, 목장, 크라우드펀딩, 상속·증여, 상속유증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2.8.18	관할청 또는 관할청별 관여대상	-
③ 농지임대차계약 * 임대차 계약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2.8.18	사위, 사면, 교부채용 등	-

*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농지를 위해서 시행된 부지전용 변경의 경우

제재사항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액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250	350	500
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2회 위반	100	300	3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농지소유자 행정청(시/구/읍/면)에 문의 바랍니다.

✉️ **입국 전**



Q-code에 접속하기
(<https://cov19ent.kdca.go.kr>)

✓ 여권, 항공권, 음성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 **탑승 전**

여권, 입국/체류, 예방접종, 검사, 건강상태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기

✓ 모든 입력 단계에서 임시저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입력하신 내용 확인 후 QR코드를 발급하기

△ QR코드 발급 후에는 건강상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도착 후**

검역관에게 QR코드 제시하기

✓ 종이로 인쇄하거나 전자기기로 캡처한 QR코드 모두 가능합니다.
✓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국 후**

입국 후 PCR검사받고 검사결과 등록하기

✓ Q-code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https://cov19ent.kdca.go.kr>)
✓ '입국 후 검사등록' 클릭하고 검사결과를 등록해주세요.

양양국제공항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이 실시됨을 안내드리니, 신속한 검역 절차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홈로거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모)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제외	월세 부담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의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2022.08.22(월) 00:00(이하) 2022.08.22(월) 23:59:59
제한 대상	지원 기간
- 주택 소유자 - 직전년도 청약·자택 2건 이상 주택 청약 - 공공주택에 입주 - 보증금 50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전세임대주택을 분양한 바 있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2022.8.22(월) 부터 1년간 지원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 방법	소득·재산기준
①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www.bokji.go.kr) 또는 홈페이지에서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2.08.22(월) 00:00 ~ 2022.08.22(월) 23:59:59	- 소득: 가구 총소득이 2022년 12월 기준 월평균 소득 60% 이하 - 재산: 월 173.7억 원 이하의 이하인 경우(주택가치 포함) * 월소득: 1월 소득 + 2월 소득 + 3월 소득 / 3 * 월 173.7억 원: 1억 1,737만 원

주최



주관



문의 033.248.5019



YANGYANG YRUN

양양 강변 전국마라톤대회

2022

11.13

WHY RUN? Y RUN!

우리는 왜 달리는가? = WHY RUN?
새로운 곳은 없는가? = YANGYANG?
러너 본능을 깨우다! = YRUN

WWW.YRUN.CO.KR

〈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참가신청

HALF, 10km, 5km

선착순마감!

2022 양양 강변 전국마라톤 대회

2022 전국 고등학교 10km대회 겸 중학교 5km대회

추가 기념품



양양해뜨미 쌀1kg

#양양군 #전국 #마라톤대회

셔틀버스운영



참가 기념품

트랙수트 1세트